

엔저·무비자에 日여행 수요 ↑… 항공업계, 실적회복 '시동'

일본여행객 수 전월비 248% 증가
LCC, 4분기 여객 활성화 '사활'
지역 국제공항, 일본행 노선 운항

“일본 여행을 왔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만큼이나 많아요.”

16일 일본 여행 중인 최모씨 부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온 도쿄에서 새삼스레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항공업계도 일본 관광 여객이 늘어 여름 성수기만큼 뜨거운 겨울 성수기를 보내고 중이다. 이 배경에는 '엔저'와 '무비자'가 한몫하고 있다. 각국 방역 완화로 자유로운 해외 여행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1300~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 쉽사리 해외 여행길에 오르기 힘든 분위기도 공존했다. 하지만 일본은 100엔 당 900~940원대를 유지하며 가까운 나라 중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시스템에



16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 신사 앞에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일본을 오간 여객 수는 41만6132명으로 전월 대비(16만7900명) 24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던 올해 1월(1만731명)과 지난해 10월(1만5133명)과 비교하면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최씨는 “9월에 예약해둔 일본 노선인

데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면서 “예약 당시보다 노선도 훨씬 많아졌고 만석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도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저비용항공사(LCC)들도 3분기 흑자전환에는 실패했지만 일본 노선 증편을 서두르며 4분기 여객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진에어는 올해 3분기 매출 1745억원, 영업손실 174억원, 당기순손실 410억원을 거뒀고 ▲제주항공은 매출 1957억원, 영업손실 616억원, 당기순손실 676억원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은 매출 1584억원, 영업손실 323억원, 당기순손실 572억원을 거두며 적자폭을 크게 줄여나가며 3분기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난 7월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국제선을 운영하는 등 지역 국제공항들의 일본행 노선 운항도 빠르게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어 일본으로 향하는 여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직 고회율·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자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다. LCC들은 4분기 수익을 통한 적자 탈출을 고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LCC 관계자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확

신은 하지 못하지만 최고점에서는 떨어져서 조금은 안도가 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3분기 평균 환율이 2분기 평균환율보다 80원 높았다”면서 “원가 부담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이 환율이니만큼 환율의 향방이 흑자 전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의 3분기 외화환산손실이 1조2846억원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국적 항공사들의 올해 누적 외화환산손실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상화 조건을 하나씩 갖춰가는 단계고, 연말연시 연휴 특수와 겨울 여행 수요 활성화로 여객 수요가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유럽 공항만큼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 현지 조업사들이 완벽히 정상화한 것은 아니어서 한없이 노선 증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제네시스 첫 오픈카... X컨버터블 콘셉트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별한 유연성
내외장에 한국적인 미·정서 담아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컨버터블 형태의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며 전기차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네시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콘셉트카 '엑스 컨버터블'을 선보였다. X 콘셉트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이자 브랜드 첫 컨버터블 콘셉트다. 지난해 공개된 X, 올해 4월 선보인 X스피드디움 쿠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올 신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담았다.

지붕을 여닫는 컨버터블의 특성을 활용해 '자연환경과 교감하는 운전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루크 동커블케 제네시스 부사장은 “엑스 콘셉트 시리즈”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한 유연성은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특별함이라며 “이번 컨버터블 콘셉트에는 운전의 즐거움과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고객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



제네시스 '엑스(X) 컨버터블' 전기차 콘셉트

는 제네시스의 의지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엑스 컨버터블'은 앞선 두 콘셉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네시스의 고유한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표현하는 동시에 컨버터블답게 하드탑 문루프 등으로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한다. 문루프는 컨버터블의 하드탑이 열리지 않더라도 차내부로 햇빛이나 달빛이 들어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천장의 유리패널이다.

내외장에 한국적인 미와 정서를 담은 색상을 쓴 점도 눈에 띈다. 실내는 한국 전통 가옥의 지붕에서 영감을 얻은 기와 네이비, 전통 목조건물에 무늬를 그

려 넣는 채색기법 단청에서 따온 단청 오렌지를 썼다. 외장은 두루미의 자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 전문 회사인 메탈 사운드 디자인의 사운드 마스터 유국일 명장과 협업해 설계한 사운드 아키텍처가 적용됐다.

한편 제네시스는 오는 18일 열리는 LA 오토쇼에도 '엑스 컨버터블'을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GV60 등 주요 전기차 라인업과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플래그십 세단 G90 ▲GV80 ▲GV70 ▲X 스피드 디움 쿠페 콘셉트를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ysw@

CJ올리브네트웍스 데이터 마케팅 컨퍼런스 개최

우수사례·트렌드 등 공유

CJ올리브네트웍스가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데이터 마케팅 컨퍼런스 'The MAXONOMY 2023'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The MAXONOMY 2023'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데이터 마케팅 컨퍼런스이다. '데이터로 설계하고 예측하는 진

짜 데이터 마케팅 시대 준비하기'를 주제로 데이터 마케팅 우수 사례, 트렌드, 전망 등을 공유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Team MAXONOMY(팀 맥소노미)'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전문가 그룹으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Braze'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Amplitude'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

다.

'The MAXONOMY 2023'에서는 총 9개의 발표 세션과 2개의 패널 토크가 진행된다. 발표 세션은 ▲Braze ▲Amplitude ▲티빙 ▲AppsFlyer 등 글로벌 파트너사가 참여해 마케팅 데이터의 활용,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문제해결 팔 걷는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산업계 전반으로 불거지고 있는 중대재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내 산업계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16일 현대차그룹 계동사옥내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재단 운영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으로서,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의 현대차그룹 협력 업체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 여건 상 안전 관련 투자가 쉽지 않고, 자체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차그룹 6개사는 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과 매년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기술 지원 ▲업종별 사고 사례, 안전 관련 법령 자료 등 안전 정보 및 자료 지원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 전체로 전파되어 명실상부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T,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 인증 획득

ESG경영 고도화

SK텔레콤은 반부패 경영환경 구축을 통한 ESG경영 고도화 및 윤리경영 체계 정착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수립한 부패방지경영에 관한 요구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표준이다.

SKT는 'ISO 37001' 인증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별 부패 리스크에 대한 도출 및 평가를 통한 리스크 통제방안 및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오경희 원장(우측)이 을지로에 있는 SKT T타워에서 채준근 SK텔레콤 윤리경영담당(좌측)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SKT

이를 기반으로 SKT는 지난 10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에 SKT가 갖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충족함을 공식적 인정받게 됐다.

/채윤정 기자 echo@